

경찰관의 가치관이 경찰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ffects of Police Officers's Values to the Police Organization

신성원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Seong-Won Sin (police7@du.ac.kr)

요약

개인의 가치관은 개인의 태도, 행동, 생활방식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따라서 조직에서의 개인의 행동과 행동적 경향성에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조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경찰 조직문화 역시 경찰관들 개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경찰 조직문화 및 가치관의 개선을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 경찰관의 가치관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가치관의 특성을 살펴보고, 유일한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는 한상암·정덕영(2007)의 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공통 특성 및 차이점을 파악하여 후속 연구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드러났는데, 선행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경찰관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평등은 기존의 열구결과들과 다소 다르게 중간정도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국가의 안전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가치관 | 조직문화 | 사회적 가치 | 개인적 가치 | 평등 | 국가의 안전 |

Abstract

Individual values exert strong influence on attitudes, behaviors and lifestyles of a person. Furthermore, Individual values predict personal world views and can predict behavior and behavioral predispositions in the organization. So, individual values influence the organization strongly. And, organizational culture in police is affected by the values of police offic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use of the theory of human values developed by Rokeach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evaluate value preferences among police officers in Korea and have a thorough grasp of the point of sameness and difference with two studies.

In this study, I analyze data and make a comparative study of values with preceding studies. I find that police officers regard personal values as more important than social values. A noticeable finding of this study is the middle ranking of the value of equality among police officers. It's different result with other studies. And, the value of national security is the low ranking among police officers. It's the same result with preceding studies.

- keyword : | Values | Organizational Culture | Social Values | Personal Values | Equality | National Security |

* 이 논문은 2007년도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접수번호 : #090427-001

접수일자 : 2009년 04월 27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5월 18일

교신저자 : 신성원, e-mail : police7@du.ac.kr

I. 서론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개인의 가치관은 자신의 태도, 행동, 생활방식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조직 속에서 개인의 가치관은 타인의 가치관과 결합하여 조직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성패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1].

경찰조직의 문화는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보수적, 냉소적, 비밀주의적 특성 등을 가지고 있다[2]. 이러한 특성들은 최근 경찰조직이 추구하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배치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경찰조직이 단순한 법집행자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와 조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문화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최근 경찰의 역할은 과거의 법집행 중심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데[3], 이러한 경찰활동의 변화는 경찰조직의 문화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바이다.

또한, 이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하부 요소인 개인의 가치관을 탐색하여 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변화 방법을 모색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경찰 조직상 문화 및 가치관의 개선을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 우리나라 경찰관의 가치관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의 선행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 하에서 거의 유일한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는 한상암·정덕영(2007)의 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공통 특성 및 차이점을 파악하여 후행 연구의 토대가 되고자 함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치관의 의의

가치(value)란 개인의 행동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개인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개인의 태도나 행

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치는 어떤 형태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개인의 만족감이나 사물에 대하여 갖는 의미의 내용을 결정한다. 인간의 삶은 현실적으로 가지지향적 (value orientation)이기 때문에 가치는 개인의 의식구조 속에 내면화되어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한다[4].

Kluckhohn은 가치를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지어주는 것으로서, 행위의 이용 가능한 모든 형태, 수단, 목표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5].

Rokeach는 가치를 “특정한 행위방식이나 존재의 궁극적 상태가 개인이나 사회로부터 선호되는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6].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치는 개인이 사물이나 상황에 대하여 ‘좋다/나쁘다’, ‘옳다/그르다’, ‘바람직스럽다/바람직스럽지 않다’와 같은 것을 판단하는 일종의 심리적 과정으로서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며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7].

한편, 가치관의 특성과 형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은 옳고 그름,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것을 선호하고 선택하여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준거가 된다.

둘째, 가치관은 장기간의 학습을 통하여 습득된 신념체계로서 쉽게 변화하지 않는 비교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지닌다.

셋째, 가치관은 개인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필요성의 강도에 따라 우선순위화 된 하나의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넷째, 가치관은 사람의 욕구에 대한 행동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다섯째, 가치관은 사전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선입관을 형성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성이거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특성들은 개인이 가치관을 형성 내지 학습하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개인들은 특정한 가치관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 속에서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8].

2. 선행연구의 검토

가치관이 경찰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Rokeach와 그의 동료들이 1968년 153명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Rokeach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Rokeach 척도는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s)를 나타내 주는 18가지의 가치항목과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s)를 나타내주는 1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로 가치관과 관련된 수많은 실증적 연구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Rokeach와 그의 동료들(1971)은 경찰관들이 일반시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독특한 가치관의 유형을 보이는데, 특히 조사대상 경찰관들은 일반시민들에 비해 평등에 매우 낮은 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Rokeach와 그의 동료들은 평등 항목이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정치적 보수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찰 조직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9].

또한, Rokeach와 그의 동료들(1973)은 경찰조직에서 의의 사회화 과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인인 재직연수를 활용하여 가치관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다양한 경력을 지닌 경찰관들 사이에서 가치관에 있어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10].

Rokeach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 이후 많은 학자들이 경찰관의 가치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왔는데 대표적인 연구들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eevan과 Dolnick(1973)은 79명의 경찰관과 일반시민들의 가치관 비교에서 Rokeach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다[11].

Griffeth와 Cafferty(1977) 역시 Rokeach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일반시민에 비해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2].

Sherrid(1979)는 384명의 경찰관의 가치관을 조사하였는데, Rokeach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으며, 여러 항목들 중 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13].

Walker와 Kratcoski(1985)는 백인 및 흑인 경찰관,

일반시민의 가치관을 비교하여 백인 경찰관이 흑인 경찰관 및 백인 시민보다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14].

Zhao와 그의 동료들(1998)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Rokeach와 그의 동료들(1971)의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는데, Rokeach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 아래 경찰관들의 가치관에 현저한 변화가 없음을 발견하였고, 경찰관의 가치관은 경력과 소집단의 차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고하였다[15].

Caldero와 Larose(2001)는 119명의 경찰관과 일반시민의 가치관을 비교하였는데, 경찰관들은 일반시민과 다른 가치성향을 보이며, 경찰관들의 가치관의 형성은 직업사회화의 과정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16].

한편, 국내에서 Rokeach 척도를 활용하여 경찰관의 가치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한상암·정덕영(2007)의 연구가 전무후무하다. 한상암·정덕영(200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관의 가치관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미국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7].

그 외 윤우석·성용은(2008)은 현직 경찰관이 아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 조직에의 입직의도와 가치관을 타직군입직 희망집단과 경찰입직 희망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궁극적 가치에 있어서 경찰입직 희망집단이 타직군입직 희망집단보다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며, 두 집단 모두 평등이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단적 가치에 있어서 경찰입직 희망집단이 타직군입직 희망집단보다 넓은 마음, 이타적 생활, 예절, 정직, 책임감, 자제력, 개인적 능력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상의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관의 가치관은 Rokeach와 그의 동료들(1971)의 연구 아래 큰 변화가 없으며, 경찰관들이 일반시민에 비해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결과 분석

1. 조사대상 및 방법

설문은 각각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Rokeach의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 척도와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 척도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표집된 조사대상자는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었다. 자료의 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08년 9월부터 10월 중에 이루어졌는데, 총 17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20부를 제외하고 152부를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2. 궁극적 가치

우리나라 경찰관의 가치관 중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s)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1순위, 가정의 안전을 2순위, 행복을 3순위로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개인적인 안위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국내외의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4순위는 평화로운 세상, 5순위는 마음의 안정, 6순위는 아름다운 세상, 7순위는 자유로 응답하여,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안정에 높은 순위를 부여함을 알 수 있다.

8순위는 성취감, 9순위는 평등, 10순위는 도전지향적 생활로 나타났는데, 개인의 직업적 성취와 관련된 것들에 중간 정도의 순위를 부여함을 알 수 있다.

11순위는 진실한 사랑, 12순위는 즐거움으로 개인적 쾌락과 관련된 부분에는 중하위의 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의 안전은 13순위로 나타나 공공의 안전을 업으로 삼는 경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가치들에 비해 공익이 낮게 나타나 특이하였다. 이는 미국의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우리나라 경찰관들도 갈수록 개인적이 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 하

겠다.

14순위는 사회적 존경, 15순위는 지혜로움, 16순위는 진실한 우정, 17순위는 자존심, 18순위는 구원의 순으로 나타나 개인의 정서적 성숙과 관련된 것들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우리나라 경찰관들 역시 미국의 경찰관들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적·현실적 가치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궁극적 가치

궁극적 가치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6.81	5.71	1
도전지향적 생활	9.18	5.15	10
성취감	8.24	5.06	8
평화로운 세상	7.63	5.19	4
아름다운 세상	8.16	4.85	6
평등	9.14	5.25	9
가정의 안전	6.82	5.27	2
자유	8.24	4.82	7
행복	6.97	4.92	3
마음의 안정	7.93	4.89	5
진실한 사랑	9.53	4.45	11
국가의 안전	10.29	4.79	13
즐거움	9.72	4.15	12
구원	12.72	4.48	18
자존심	12.26	4.41	17
사회적 존경	11.91	4.17	14
진실한 우정	11.99	4.43	16
지혜로움	11.99	4.74	15

3. 수단적 가치

개인이 궁극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수단적 측면에서 경찰관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나타내주는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s)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넓은 마음을 1순위, 용기를 2순위, 개인적 능력을 3순위, 즐거운 기분을 4순위, 정직을 5순위, 관용을 6순위로 응답하였다.

중간 정도의 순위들을 살펴보면 창의력을 7순위, 애심을 8순위, 청결은 9순위, 독립심을 10순위, 사랑하는 마음을 11순위, 예절을 12순위로 응답하였다.

하위 순위의 수단적 가치들을 살펴보면 지적인 능력

이 13순위, 책임감이 14순위, 이타적 생활이 15순위, 논리적인 사고가 16순위, 자제력이 17순위, 순종하는 마음이 18순위로 나타났다.

표 2. 수단적 가치

수단적 가치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야심	9.07	6.02	8
넓은 마음	7.10	5.08	1
개인적 능력	7.90	4.99	3
즐거운 기분	8.21	4.84	4
청결	9.76	5.00	9
용기	7.77	4.46	2
관용	8.32	4.81	6
이타적 생활	10.21	5.36	15
정직	8.23	5.04	5
창의력	8.88	4.46	7
독립심	10.07	4.74	10
지적인 능력	10.11	4.66	13
논리적인 사고	10.23	4.88	16
사랑하는 마음	10.09	5.23	11
순종하는 마음	11.83	4.66	18
예절	10.09	5.24	12
책임감	10.19	5.57	14
자제력	11.63	5.25	17

IV. 선행연구와의 비교 분석

여기서는 선행 연구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찰관의 가치관에 대해서 연구한 한상암·정덕영(2007)의 연구에 나타난 궁극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두 연구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첫째, 경찰관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부실한 국내 실정에서 우리나라 경찰관의 공통된 가치성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둘째 조사시점이 각각 2006년과 2008년으로 2년의 시차가 있는데 비록 2개 연구에 불과하고 조사대상이 전혀 다르지만 연구결과의 종단적 변화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궁극적 가치 비교

먼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은 각각 2순위와 1순위, 가정의 안전은 각각 1순위와 2순위, 행복은 공히 3순위로 응답하여 두 연구의 조사대상자 모두 개인적인 안위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함을 파악할 수 있다.

마음의 안정, 아름다운 세상, 자유, 성취감은 두 연구 모두에서 높은 순위로 나타나 개인의 주변 환경의 안정 역시 조사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존경, 지혜로움, 진실한 우정, 자존심 같은 개인의 정서적 성숙과 관련된 것들은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평화로운 세상, 평등, 국가의 안전, 즐거운, 구원은 두 연구 결과에서 5순위 이상 차이가 나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 궁극적 가치 비교

궁극적 가치	한상암·정덕영		신성원		순위 변화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5.54	2	6.81	1	+1
도전지향적 생활	11.03	11	9.18	10	+1
성취감	8.83	6	8.24	8	-2
평화로운 세상	7.86	10	7.63	4	+6
아름다운 세상	8.06	8	8.16	6	+2
평등	10.79	14	9.14	9	+5
가정의 안전	4.67	1	6.82	2	-1
자유	8.51	9	8.24	7	+2
행복	5.98	3	6.97	3	-
마음의 안정	7.12	7	7.93	5	+2
진실한 사랑	10.29	15	9.53	11	+4
국가의 안전	9.09	4	10.29	13	-9
즐거움	9.91	5	9.72	12	-7
구원	15.01	13	12.72	18	-5
자존심	13.31	17	12.26	17	-
사회적 존경	11.70	18	11.91	14	+4
진실한 우정	11.52	16	11.99	16	-
지혜로움	11.36	12	11.99	15	-3

특히, 평등의 경우는 한상암·정덕영(2007)의 연구에서는 14순위로 나타났지만, 이 연구에서는 9순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평등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는 일반시민 집단보다 경찰 집단에서 대부분 낮은 순위로 나타났는데, 평등이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경찰 조직이 보수적이라는 결론의 근거가 되어 왔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결과들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안전의 경우는 한상암·정덕영(2007)의 연구에서는 4순위로 나타났지만, 이 연구에서는 13순위

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미국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19],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번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경찰관들이 전반적으로 궁극적 가치에 있어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수단적 가치 비교

수단적 가치 항목들에서는 한상암·정덕영(2007)의 연구결과와 이 연구의 결과 사이에 많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넓은 마음, 즐거운 기분, 관용, 이타적 생활, 지적인 능력, 순종하는 마음, 예절 외의 항목들에서는 4순위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수단적 가치보다는 궁극적 가치 항목들만을 활용하여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수단적 가치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4. 수단적 가치 비교

수단적 가치	한상암·정덕영		신성원		순위 변화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야심	12.32	16	9.07	8	+8
넓은 마음	7.38	3	7.10	1	+2
개인적 능력	8.86	8	7.90	3	+5
즐거운 기분	8.22	5	8.21	4	+1
청결	10.91	15	9.76	9	+6
용기	8.76	7	7.77	2	+5
관용	8.67	6	8.32	6	-
이타적 생활	13.74	18	10.21	15	+3
정직	6.10	1	8.23	5	-4
창의력	9.78	12	8.88	7	+5
독립심	10.28	14	10.07	10	+4
지적인 능력	9.00	10	10.11	13	-3
논리적인 사고	9.49	11	10.23	16	-5
사랑하는 마음	8.20	4	10.09	11	-7
순종하는 마음	13.09	17	11.83	18	-1
예절	8.89	9	10.09	12	-3
책임감	6.76	2	10.19	14	-12
자제력	10.16	13	11.63	17	-4

3. 상관관계 분석

두 연구 간의 궁극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상관관계를 스피어만 서열 상관관계(Spearman's rho)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두 변수들은 서열척도이기 때문에 스피어만 상관관계를 활용하였다.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궁극적 가치에서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도구적 가치에서는 다소의 상관관계만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상관계수	유의확률
궁극적 가치 상관관계	.715**	.001
도구적 가치 상관관계	.511*	.030

주 : * P<.05, ** P<.01

V. 결론

개인의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행동 및 조직 문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직에서 관리자들이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조직문화의 변화에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찰관의 가치관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가치관의 특성을 살펴보고, 유일한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는 한상암·정덕영(2007)의 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공통 특성 및 차이점을 파악하여 후속 연구의 토대로 삼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및 한상암·정덕영(2007)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드러났다.

첫째, 궁극적 가치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찰관들 역시 선행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적·현실적 가치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등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는 일반 시민 집단보다 경찰 집단에서 대부분 낮은 순위로 나타났으나,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이러한 결과들과 다소 다르게 중

간정도의 순위로 나타났다.

셋째, 국가의 안전의 경우는 대부분의 미국의 선행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끝으로 수단적 가치 항목들에서는 한상암·정덕영(2007)의 연구결과와 이 연구의 결과 사이에 많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수단적 가치보다는 궁극적 가치 항목들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수단적 가치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최학수, 장병수, “여행사 종사원의 근로가치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부산지역 여행사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Vol.13, No.2, 한국관광레저학회, pp.129-130, 2001.
- [2] 윤우석, 성용은, “대학생들의 경찰입직 의도와 가치체계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3호, p.267, 2008.
- [3] A. M. Webber, "Crime and Management: an Interview with New York City Police Commissioner Lee P. Brown,"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p.125, 1991.
- [4] 김원, 우갑정, 알기 쉬운 조직행동, 명경사, p.124, 2003.
- [5] C. Kluckhohn, "Values and Values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 An Expi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Talcott Parsons and Edward A. Shiles(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p.404, 1951.
- [6] M. Rokeach,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pp.5-7, 1973.
- [7] 박영배, 조직행위론, 법문사, pp.113-114, 2001.
- [8] 김원, 우갑정, 알기 쉬운 조직행동, 명경사, p.125, 2003.
- [9] M. Rokeach, M. Miller, and M. J. Snyder, "The Value Gap Between Police and Policed," Journal of Social Issues, Vol.27, p.162, 1971.
- [10] M. Rokeach and S. Ball Rokeach, "Stability and Change in American Value Priorities : 1968-1981," American Psychologist, Vol.44, pp.775-784, 1989.
- [11] J. J. Teevan and B. Dolnick, "The Value of the Police : A Reconsideration and Interpretation," Journal of Police Science & Administration, Vol.1, No.3, pp.366-369, 1973.
- [12] R. W. Griffeth and T. P. Cafferty, "Police and Citizen Value Systems : Some Cross-sec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3, pp.191-204, 1977.
- [13] S. Sherrid, "Changing Police Values," in Spielberger, C., (ed.) Police Selection and Evaluation: Issues and Techniques,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Co., pp.167-176, 1979.
- [14] D. B. Walker and P. C. Kratcoski, "A Cross Cultural Perspective on Police Values and Police Community Relations," Criminal Justice Review, Vol.10, pp.17-24, 1985.
- [15] J. Zhao, N. He and Nicholas P. Lovrich, "Individual Value Preferences among American Police Officer : The Rokeach Theory of Human Values Revisited," Policing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21, No.1, pp.22-37, 1998.
- [16] A. M. Caldero and P. A. LaRose, "Value Consistency within the Police : The Lack of a Gap,"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24, pp.162-180, 2001.
- [17] 한상암·정덕영, “경찰공무원의 가치관에 대한 한·미간의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7, No.2, pp.191-201, 2007.
- [18] 윤우석, 성용은, “대학생들의 경찰입직 의도와 가치체계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3호, pp.265-293, 2008.

- [19] 한상암, 정덕영, “경찰공무원의 가치관에 대한
한·미간의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7, No.2, pp.198-200, 2007.

저자 소개

신 성 원(Seong-Won Sin)

정회원



- 2001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
정학부(법학사)
- 2003년 8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
정학부(경찰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
정학부(경찰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학, 범죄학, 청소년비행